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 상황 대비 자치경찰제 확대해야”

국회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

행정·치안 신속 협조 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
자치분권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시급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팬데믹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원활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치경찰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김두관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와 자치분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정식 제주자치경찰청장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제주도 자치경찰단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타 시·도는 지자체가 관할 지방경찰청과 기관 협조를 통해 행정지원을 받는 체제인 반면 제주도는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도지사의 일원화된 지휘 아래 지원활동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다”며 “자치경찰이 도입된다면 지역재난 상황을 자치단체장의 일원화된 지휘 아래 역량을 결집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2006년 이후 자치경찰공무원 156명, 일반직공무원 10명, 공무원 8명 등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예비대’를 편성했다. 이들은 ▲공향·향남 발열감시 지원 ▲자가격리시설 경비 지원 ▲집단이유시설 점검 지원 ▲마스크 매점매식 행위 등 기획 수사 ▲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유통한 업자 구속 등의 활동을 했다.

우 과장은 “자치경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과 치안이 중간단계 없이 신속하게 협조해 초기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자치경찰이 지역 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기구를 상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자치분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철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에선 세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향세’라는 명칭 대신에 ‘고향사랑기부제’로 고쳐

부르고, 이를 통해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본은 기부지자체를 지정하고 2000엔 이상은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공제를 받으며 자신의 기부금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또 병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대구의 코로나 확진 환자를 광주시가 치료했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전염병 대응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천대 소진광 교수는 “향후 감염병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취약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충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지방정부끼리의 협력적 거버넌스도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성찰영물 소지뎨 3년 징역·3000만원 벌금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길어져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하도록 한 특별법 공포안도 통과했다. 정부는 우선 이 특별법을 통해 한국인 근로자의 생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반영해 최종 분담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체된 소비를 살리고 ‘선결제·선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에 대한 선결제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 규제특례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과 5년마다 이뤄지는 보건 의료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 의료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항공과 해운업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하는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외교부 “신규 문서 일부 포함... 기존 삭제된 부분까지 공개”

美, 5·18 기밀문서 사본 43건 정부에 전달... 어떤 내용 담겼나

미국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밀문서 일부를 한국 정부에 제공함에 따라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12일 “2019년 11월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측에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문서의 비밀해제 검토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5월 11일 미국은 우리에게 미측 기록물의 추가적인 비밀해제 사실을 설명하고 문서 사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추가로 비밀 해제해 제공한 기록물은 총 43건(약 140쪽 분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이 생산한 것을 포함해 모두 미 국무부 문서다. 대부분은 과거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로 비밀해제됐으나 이번에 미측은 이 문서들을 완전히 공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문서가 일부 포함된 것 같다”며 “대부분은 기존에 공개된 문서 일부인데 삭제된 부분이 비밀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주 전적으로 살펴볼 시간은 아직 없었다”면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문서들) 우선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서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미측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할 것이고 공개해야 할 부분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재 미측이 제공한 문서들에 대해 외교부가 번역과 내용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적인 보고를 아직 받지 않은 상황이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 이전에 주요 내용을 발췌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미국 정부의 기

밀문서 원본 공개를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10월 21일 외교부 국경감사에서도 박주선, 천천배 의원 등이 외교부가 미국의 협조를 구하라는 주문을 했었다.

미국 국무부 기밀 문서철에 포함된 문서는 1979년 1월-1980년 12월까지 주한 미 대사관과 국무부 사이에 오고 간 전문들로 5·18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이번에 신규 문서들을 기밀 해제하고 한국 정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의 추가적인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측이 인권·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 정신을 바탕으로 금번에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준 데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연합뉴스



5·18 40주년 서울 특별전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서울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다목적홀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서울특별전 ‘오늘 그날이 다시 오면’ 개막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절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